



EBB 실모공방

2027학년도 대비

심화편 ADVANCED

# 2027 연세대 미래캠퍼스

## 인문논술 실전 모의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6문항 11소문항 · 80점 · 120분

2027 모의논술 가이드북의 문항 형식·배점 반영

공식 모의와 같은 채점 방식(체크리스트형·수준형)

2026년 최신 시사 통계 + 고교 교과서 제재

ADVANCED

실전 모의고사

제3회

이 파일은 EBB 실모공방이 자체 제작한 유료 교재입니다.

무단 공유를 보시면 구매한 곳의 EBB 실모공방 문의 창구로 알려 주세요.

© EBB 실모공방

## 제3회 실전 모의고사 · 인문계열 · 심화편

시험 시간 120분 (목표 풀이 시간 100분) · 6문항 11소문항 · 총 80점

수험번호

성명

### 응시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실전과 같이 시계를 두고 끝까지 풀어 보십시오.
2. 답은 반드시 답안지의 해당 문항 칸에 쓰십시오. 문제지에 쓴 답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3. 계산기와 사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그래프의 수치는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4. 각 문항의 ※ 조건(문장 수, 글자 수, 반드시 넣을 표현)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5. 답안은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십시오(연필 사용 가능).

### 문항 구성

| 문제   | 배점  | 문항 형태                     | 답안 조건                  |
|------|-----|---------------------------|------------------------|
| 문제 1 | 20점 | 표 해석 → 판단·선택 + 이유 쓰기      | 2문장 이내 / 3문장 이내, 필수 표현 |
| 문제 2 | 10점 | 반박 관계 요약, 빈칸 찾아 쓰기, 증감 판단 | 200자 이내 / 각 6자 이내      |
| 문제 3 | 10점 | 그래프 해석 + 제시문 핵심 주장        | 300자 이내                |
| 문제 4 | 17점 | 사상 빈칸 + 제시문 근거 서술         | 300자 내외                |
| 문제 5 | 13점 | 한국사 시간 순서 배열 + 용어·반론      | 100자 내외                |
| 문제 6 | 10점 | 상황 속 방송 연설문 쓰기            | 200자 내외·청중 당부 포함       |

### 답안 작성 요령

- 글자 수는 공식 모의 가이드북의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에 맞추어 씁니다. 서술형 답안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세고, 빈칸 단답의 '각 ○자 이내'는 띄어쓰기를 빼고 씁니다(공식 예시 답안은 '각 6자 이내' 빈칸에 '노령화의 추세'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지는 띄어쓰기·문장 부호·숫자 한 자리도 한 칸입니다.
- 발문의 가)·나)는 답을 나누어 쓰는 칸의 표시이며, 답안지의 같은 표시 칸에 씁니다. 제시문 (가)·(나)와는 다릅니다.
- '○○자 이내'는 한도를 넘기면 감점합니다. '○○자 내외'는 기준의 85~115%를 목표로 쓰고, 50%에 못 미치거나 150%를 넘으면 감점합니다.
- '찾아 쓰시오'는 제시문에 있는 말을 글자 그대로 옮겨 씁니다.
- 제목이나 서명을 쓰면 글자 수에 포함됩니다(쓰지 않아도 감점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제3회 v3.23

문제 1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20점

(가) 최저 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곳에 하한을 두는 가격 하한제의 하나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재분배에 도움을 주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달리 적용했을 뿐,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단일 적용을 이어 왔다. 2026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에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다시 요구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고(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0,700원으로 업종 구분 없이 적용된다.

나라 밖에는 최저임금을 지역마다 따로 정하는 곳도 있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두고 주가 그보다 높게 정할 수 있게 한다. 결정 방식을 바꾸자는 논의는 흔히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내세운다. 이런 목적과 함께 따져 볼 것이 각 기준의 무게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하나의 최저임금 기준이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중으로 가늠할 수 있다.

표 1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비교

| 구분        | 기준을 정하는 단위  | 내세우는 근거         | 제기되는 우려             |
|-----------|-------------|-----------------|---------------------|
| 단일 적용     | 전국·전 업종에 하나 | 같은 노동에 같은 최저 보호 | 지역·업종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
| 업종별 구분 적용 | 업종마다 따로     |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 반영 | 낮게 정해진 업종의 인력 이탈·낙인 |
| 지역별 구분 적용 | 지역마다 따로     | 지역별 생계비 차이 반영   | 지역 간 임금 격차·인력 이동    |

표 2 B국의 최저임금 현황 및 개편안

| 구분      | 항목                                  | 내용                                               |
|---------|-------------------------------------|--------------------------------------------------|
| 현황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 2,000만 명(생계비 상위 2개 지역 100만 명 + 그 밖의 지역 1,900만 명) |
|         | 전국 최저임금                             | 시간당 10,000원(모든 지역·업종에 단일 적용)                     |
|         | 수습 근로자                              | 200만 명(모두 그 밖의 지역에서 근무)에게 전국 최저임금의 90% 적용        |
| 개편안     | 수습 근로자 감액                           | 폐지(수습 근로자에게도 전국 최저임금 적용)                         |
|         | 지역 최저임금 신설                          | 생계비 상위 2개 지역에 시간당 11,000원 적용                     |
| 중요 유의사항 | 영세 사업장 인건비 지원                       | 생계비 상위 2개 지역의 영세 사업장에만 지역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1년 동안 지원 |
|         | B국 연구원이 추천한 생계비 상위 2개 지역의 고용(지원 반영) | 개편 전 100만 명, 개편 후 99만 명                          |

1-1 표 2를 바탕으로, B국의 최저임금 제도에서 전국 단일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이 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고, 나) 그 이유를 쓰시오. (10점)

※ 나)의 답안은 반드시 2문장 이내로 작성하고, 답안에는 반드시 "단일 적용"과 "구분 적용" 또는 "차등 적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시오.

1-2 표 2의 자료에 근거하여, B국의 개편안이 제시문에 제시된 목적(①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②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③ 고용 유지) 중 어느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하는지 가) 목적 하나를 고르고, 나) 이유를 쓰시오. (10점)

※ 나)의 답안은 반드시 3문장 이내로 작성하시오. 답안에는 표 2에 제시된 수치를 반드시 활용하고, "인상"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시오. 답안에는 가)에서 고른 목적의 핵심어를 그대로 포함하시오.

## ■ 채점 체크리스트

- ☐ 가) 증가로 판단했다 (감소·변화 없음은 0점) **3점**
- ☐ 나) "단일 적용"이라는 표현이 있다 (단일 기준이나 전국 기준만 쓰면 0점) **1점**
- ☐ 나) "구분 적용" 또는 "차등 적용"이라는 표현이 있다 **1점**
- ☐ 나) 표 2의 인정 요소를 2개 이상 썼다 (1개면 1점, 표와 무관한 일반론은 0점) **2점**
- 인정 요소: 전체 2,000만 명 / 수습 근로자 200만 명 / 수습 감액(90%) 폐지 / 생계비 상위 2개 지역 100만 명 / 지역 최저임금 11,000원 / 그대로 적용받는 근로자가 1,800만 명에서 1,900만 명으로(또는 90%에서 95%로) 늘어남
  - 수치 없이 행만 지목해도 인정한다(수습 감액 폐지만 써도 1개). 같은 행에서 나온 말은 1개로 센다(생계비 상위 2개 지역과 지역 최저임금 11,000원은 한 행). '영세 사업장 인건비 지원'과 '고용 추정'은 전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비중과 무관하므로 인정 요소가 아니다.
- ☐ 나) 논리 3단계 가운데 들어 있는 수만큼 1점씩 **3점**
- ① 수습 감액 폐지(수습 200만 명이 전국 기준을 그대로 받게 됨)와 지역 최저임금(100만 명이 전국 기준 밖으로 나감)이라는 반대 방향의 두 변화를 말이나 식( $1,800 + 200 - 100$ )으로 모두 드러냈다(두 시점 수치로 처리한 경우는 허용 답 참고)
  - ② 두 변화를 합친 값을 썼다(1,800만 명에서 1,900만 명으로, 또는 90%에서 95%로). 값 없이 늘어난다고만 쓴 절은 ③으로만 본다
  - ③ 그러므로 전국 단일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나)에 문장으로 썼다
- ☐ 나) 2문장을 넘겼다 **-2점**

내 점수 \_\_\_\_\_ / 10점

## ■ 허용 답 · 불인정 답

- '늘어난다', '커진다', '높아진다'는 '증가'와 같은 판단으로 인정한다.
- '단일 적용 기준'처럼 '단일 적용'이 들어 있으면 필수 표현을 인정한다.
- ②에서 비율 없이 인원 변화(1,800만 명에서 1,900만 명으로)만 써도 인정한다. 개편 후 고용 추정(99만 명)까지 반영해  $1,900만 명 \div 1,999만 명$  (약 95%)으로 계산해도 방향이 같으므로 인정한다.
- 반대 방향 요소는 말로 짚지 않아도, 두 시점의 수치가 모두 들어간 계산(합계·비중)에 그 요소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으면 처리한 것으로 본다. 한 시점의 값만 쓰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문항에서는 '수습 근로자를 뺀 1,800만 명(90%)

에서 지역 최저임금을 받는 100만 명만 빠진 1,900만 명(95%)으로'처럼 개편 전후를 함께 쓰면 ①을 인정한다. 개편 후 1,900만 명만 쓰면 ①은 0점이다.

- × '단일 기준'만 쓰면 필수 표현 요소는 0점이다. 발문에서 쓰라고 한 말은 '단일 적용'이고, 발문의 '전국 단일 기준'과 다르다.
- × ③은 가)의 판단을 나)에서 다시 문장으로 쓰는 요소이다. 가)에만 '증가'를 쓰고 나)에 '상대적 중요성(비중)'이 커진다'는 결론 절이 없으면 ③은 0점이다.
- × '지역 최저임금이라는 구분 적용이 새로 생겨 전국 단일 체계가 깨졌으므로 감소'는 이 회차의 대표 오답이다. (가)는 상대적 중요성을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중'으로 가늠한다고 정해 두었고, 그 비중은 90%에서 95%로 오른다. 새로 생긴 구분 적용(100만 명)보다 사라진 수습 감액(200만 명)이 크다. 가) 0점, 나)는 필수 표현·표 요소만 채점한다.
- × '지역 최저임금으로 100만 명이 빠지므로 2,000만 명에서 1,900만 명으로 감소'는 개편 전 값을 잘못 잡았다. 개편 전에도 수습 근로자 200만 명은 전국 최저임금의 90%를 받아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지 않았다.
- × '적용 근로자가 2,000만 명으로 같으므로 변화 없음'은 판단 기준을 잘못 잡았다. 기준은 전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인원의 비중이고, 전체 인원은 상관이 없다.

## ■ 답안 비교 (상·중·하)

## 상 10점

- 가) 증가

공백 포함 **188자** · 공백 제외 **145자** · 2문장 · 조건 2문장  
B국은 수습 근로자 200만 명의 감액을 없애 전국 기준을 그대로 받게 하고, 생계비 상위 2개 지역 100만 명에게만 11,000원의 지역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구분 적용을 한다. 따라서 단일 적용 기준을 그대로 받는 근로자는 1,800만 명(90%)에서 1,900만 명(95%)으로 늘어 전국 단일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은 증가한다.

- 득점: 가) 3 + 단일 적용 1 + 구분 적용 1 + 표 요소 4개(2) + 논리 ①②③(3) = 10

## 중 7점

- 가) 증가

공백 포함 **91자** · 공백 제외 **69자** · 2문장  
수습 근로자 감액이 폐지되어 수습 근로자 200만 명도 전국 최저임금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므로